

선발? 마무리? 앤서니를 어디에...

선동열 감독 '마운드 구상' 퍼즐 맞추기
KIA 서재응·앤서니 호투... LG에 4-3 승

日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선동열 감독이 마지막 퍼즐 조각 맞추기에 들어갔다.

KIA 타이거즈가 8일 오키나와 이시자와 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연습경기에서 선발 서재응의 호투와 2타점을 기록한 이현근의 활약으로 4-3으로 재역전을 거뒀다.

애리조나에서 체력 만들기에 중점을 뒀던 선동열 감독은 일본으로 건너와 연습경기를 통해 전력 분석에 나섰다. 새로 팀을 맡은 만큼 실전 경기를 통해 시즌 밑그림을 그렸다.

타선의 큰 틀은 짜여져 있지만 투수조들의 부상이 이어지면서 마운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9일 경기에서도 선 감독은 마운드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를 운영했다.

선발 한축을 담당할 서재응이 가장 먼저 3이닝을 소화했고, 선발후보군 김희철과 좌완 기대주 진해수 그리고 새 외국인 선수 앤서니가 이어서 마운드에 올랐다.

전날 삼성과의 경기 선발로 예정됐었던 서재응은 하루 연기된 등판에서 3이닝 1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의 투구를 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직후 최고 구속이 141km에 그쳤지만 서재응은 투심 위주의 피칭과 낱날 제구로 LG 타선을 요리했다.

앤서니는 지난 4일 LG와의 경기에서 이

두 경기 연속 마무리 역할을 맡았다. 9회 등판한 앤서니는 10개의 공으로 아웃카운트 3개를 잡아내면서 4-3 승리를 지켰다.

앤서니는 선 감독의 마운드 구상에 중요한 조각이다.

선발진으로 투입을 준비했지만 한기주·심동섭·김진우 등 필승 계투진이 부상자 자리를 비우면서 빠르고 과감한 앤서니의 보직은 유동적이다.

9일 경기가 끝난 후 선 감독은 앤서니에게 연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상선수들의 상황에 따라서 앤서니를 앞이 아닌 뒤에 받치겠다는 계산이다.

선 감독은 "지금쯤 선발·마무리 등 밑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부상 때문에 아직도 틀을 잡지 못해서 걱정이다. 한기주가 중간에서 지켜준다면 앤서니를 부담없이 선발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아직 확실하게 뭔가를 구상할 수 없다"며 "다행히 한기주와 심동섭이 오늘 톱토스를 시작했는데 통증없이 소화했다. 앞으로 시범경기를 통해서 마운드 시험을 계속해야겠다"고 밝혔다.

선 감독은 9일 라미네즈를 첫 실전 피칭에 투입하고 앤서니를 다시 한 번 마운드에 올려 연투 능력을 테스트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2일 주니치와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오키나와 리그에 돌입했던 KIA는 9일 한화를 상대로 스프링캠프 마지막 연습 경기를 치른다.

/wool@kwangju.co.kr



8일 LG 트윈스와의 연습경기에서 3이닝을 3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한 서재응.

'복주슈' 홈 팬에 인사

<복이·주앙파울로·슈바>

광주 FC 11일 포항과 광주 개막전

자동차 등 경품 풍성

더 강해진 광주 FC가 홈 팬들 앞에서 두 번째 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광주 FC가 11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2012 K리그 홈 개막전을 치른다.

'비밀밥 축구'로 거듭난 광주는 상주 상무와의 시즌 개막전 승리의 기세를 몰아 포항을 상대로 설욕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지난 시즌 포항전 2전2패를 기록했다. 1골을 넣은 것에 비해 6골을 내주면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한 단계 전력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광주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지난해 신생팀으로서 좌중우를 쌓은 경험과 강화된 공격력을 앞세워 시즌 2연승을 노리고 있다.

지난 1라운드에서 광주는 14차례 슈팅을 날리며 상무 수비진을 흔들었다. 이번 포항전에서는 특히 외국인 공격수 '복주슈' 트리오가 공격의 핵심이다. 복이는 2m가 넘는 큰 키로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고, 주앙파울로의 스피드에 겸준된 공격수 슈바가 공격의 파워를 더한다.

여기에 지난해 대표팀에서 경험을 쌓은 박기동과 김동섭, 이승기가 그라운드 이곳저곳을 누비며 수비진 공략을 도울

계획이다.

포항은 강한 허리로 경기 흐름을 가져갔다는 계획이다.

포항은 황진성, 김태수, 신형민 등 개인기와 스피드, 패스가 좋은 선수로 허리 싸움에서 강한 모습이다.

광주는 짧은 패기를 앞세워 6일 AFC 챔피언스리그를 뚫고나와 체력이 떨어진 포항을 거세게 몰아붙여 2011년 홈 개막전 승리 재현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시민들에게 시즌 첫 인사를 올리는 광주는 풍성한 경품과 행사를 준비했다.

기아자동차 'Rey'와 삼성스마트TV, 지젤 양문형 냉장고, 드림세탁기, 노트북 등 30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이 홈 개막전 경품으로 마련됐다.

광주월드컵경기장 남문과 북문에는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등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저지스폰서인 조마 기획 등이 펼친다. 또 팝콘, 솜사탕, 파전 등 시식행사도 진행된다. 시식행사는 무료이며,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유소년 육성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 FC 시민주 10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개막전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시즌권 구매자는 개막전에 한해 1인 동반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① 오키나와 캠프 이모저모

일본 팬 "이중범 선수 50살까지 뛰면 좋겠어요"

하타세 요코하마서 원정 응원

"이중범 선수가 50살까지 야구 했으면 좋겠어요."

8일 KIA와 LG의 연습경기가 열린 이시자와 구장에 타이거즈 울드 유니폼 차림의 야구팬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7번 이중범의 유니폼을 입은 주인공은 요코하마에서 날아온 하타 슌스케(32)씨. 프로야구 특히 KIA의 연습경기를 보기 위해 휴가까지 내고 달려온 한국 야구 마니아다. 슌스케씨는 "어제 삼성과의 경기를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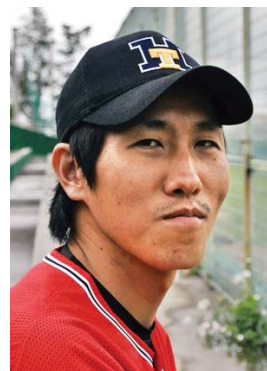
위해 아까마 구장을 갔는데 비 때문에 경기가 취소돼 아쉬웠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야구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며 "한국 스포츠가 좋고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해두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국에서 유학을 했었다"고 말했다.

2003년 한국 야구가 좋아서 유학길에 오른 그는 2년간 한양대 어학원을 다녔다. 당시 무등경기장을 비롯해 전국 야구장을 다니며 야구의 매력에 빠져 지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야구 중계를 챙겨보면서 한국 야구를 즐기고 있다.

슌스케씨가 꼽는 한국 야구의 매력은 다양성이다.

슌스케씨는 "한국 선수들은 장비도 다양한 것을 쓰고 타격 폼과 경기 하는 스타일도 각기 다르다. 장성호의 외다리 타법, 박한이의 준비 동작 등 한국 야구는 다양한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이중범. 이중범의 통산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는 것은 물론 유니폼과 이중범이 경기에서 사용하는 모델의 배트를 직접 한국으로 주문해 소장하고 있다.



슌스케씨는 "선동열 감독과 이중범 선수의 주니치 시절 경기 모습도 다 기억하고 있다. 예전에 이중범이 머리에 공을 맞았는데 바로 출루해서 도루를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부터 이중범의 열광적인 팬이 됐다"며 "여전히 현역선수로 활동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한 50살까지 야구 했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일 오키나와 이시자와 피칭장에서 KBO심판단이 KIA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

"스트~라이크!" 심판들도 전지훈련

8일 오키나와 이시자와 피칭장에는 '스트라이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원래 스프링캠프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 피칭장이다. 미트에 공이 들어가는 소리가 크게 울리거나 포구를 받을 때마다 포수들이 '나이스! 나이스!' 등을 외치기 때문이다.

8일에는 한국야구위원회(KBO)심판단까지 합류하면서 피칭장이 들썩였다.

포수들 뒤에 선 심판들은 실제 경기와 같이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들어오면 각각의 제스처와 함께 '스트라이크'를 외쳤다.

심판들도 겨울이면 전지훈련에 나선다. 각 캠프에서 진행되는 연습경기 출전해 실전감각을 쌓고 호흡을 맞추는 등 한 시즌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날 조종규 심판 위원은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렇게 돌리지 말고 빨리 팔을

헤라' 등의 조언을 하면서 훈련을 진행했다.

심판단은 캠프에서 귀한 손님이기도 하다. 캠프를 돌면서 각 팀 투수들의 공을 보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장 냉정하게 전력 평가를 해주는 고급 전력분석원이기도 하다.

새 구종을 더한 투수들은 미리 심판들 앞에서 공을 선보이기도 한다. 이날은 윤석민의 '팜볼'이 심판들에게 공개됐다.

흔들리면서 포수 미트에 빨려들어가는 공을 본 심판위원들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마구입을 인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키나와 복덕방'

KIA·삼성 선수단 반기운 만남

지난 7일 KIA와 삼성 선수단의 만남은 '복덕방'이었다. 두 팀은 같은 오키나와에 캠프를 차리고 있지만 KIA 숙소만 홀로 떨어져 있어서 선수단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

타지에서의 만남이라 더욱 반가웠던데 지난 겨울 유니폼을 맞아봐 입은 이들이 많아서 서로의 연습장을 찾아 인사를 나누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지난해까지 빨간 유니폼을 입었던 황병일 수석코치와 함께 장재중 코치가 삼성으로 자리를 옮겼고, 김평호·정희열 코치는 반대로 삼성에서 KIA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또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투수 박재태·신용운·우병걸이 삼성 선수가 됐다.

무엇보다 삼성의 수장으로 있던 선동열 감독이 그라운드에서 복귀하면서 삼성이 또 다른 진정팀이 됐다.

사제시간·동료에서 적으로 만나게 됐지만 다른 모습으로 만난 이들은 운동장 곳곳에서 담소를 하며 반가움을 나눴다.

투수 고우석은 "유니폼이 이렇게 안 어울리는 코치님은 처음 봤습니다"는 농담으로 파란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장재중 코치를 반기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

'친구' 추신수·이대호 홈런도 나란히



신수, 첫 안타가 홈런

추신수(30·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올해 미국프로야구 시범경기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추신수는 8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솔트 리버 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3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 벼락같은 홈런을 뽑아내는 등 3타수1안타로 경기를 마쳤다.

전날까지 두 경기에서 5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추신수는 마수결이 대표를 가동하며 타격 감각을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1회 제이슨 키피스의 우중월 투런포로 팀이 2-0으로 앞선 상황에서 첫 타석에 들어섰다.

그는 애리조나의 오른손 투수 트레버 케이힐의 바깥쪽 낮은 직구를 그대로 퍼올려 좌중간 펜스를 총알같이 넘어가는 1점짜리 홈런을 터뜨렸다.

3회에는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출루해 후속 타자의 만루홈런 때 홈을 밟았다.

4회와 5회에는 각각 삼진과 2루 땅볼로 물러났다.

/연합뉴스

대호, 홈구장 신고식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 4번 타자 이대호(30)가 일본 진출 후 첫 홈런포를 터뜨렸다.

이대호는 8일 오릭스의 제2홈구장인 호토모토 필드 고베에서 열린 세이부 라이온스와의 연습경기에서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1회말 첫 타석에서 선제 2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0-0으로 맞선 1회말 2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대호는 세이부 선발투수 오이시 다쓰야의 초구를 받아쳐 좌중간 펜스를 넘기는 아치를 그렸다.

7일 오사카 고세라 돔에서 장쾌한 2루타를 터뜨려 기쁜 표정을 지어보인 이대호는 이날 제2홈구장에서 대표를 가동해 방향이 예열을 마쳤다. 전날 2루타를 친 뒤 기쁜 표정을 보인 이대호는 첫 홈런을 치고 나서서 웃음기 없는 얼굴로 다이아몬드를 뒀 뒤 더그아웃으로 들어갔다.

이대호는 3-2로 앞선 3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도 오이시의 2구째를 공략해 큼직한 타구를 날렸으나 우익수 뜬공으로 잡혔다.

/연합뉴스